



연구자료 ORM 2016-46-24

2016 KICE 이슈페이퍼

ISSUE PAPER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KICE 이슈페이퍼

---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

연구자료 ORM 2016-46-24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인** 김 영 수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팩 스** (02)730-7487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정문출판 주식회사(02-2269-9301)

---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I 연구의 배경 .....	3
II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결과 .....	6
III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16
IV 기대 효과 .....	24
[ 참고문헌 ] .....	25

작 성 자

이경언, 김정호

내용 문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과서 본부 Tel: 02-3704-3662, 5953

e-mail: eon@kice.re.kr, jhyokim@kice.re.kr

※ 본고는 2016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과제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 관련 과제명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 책임자

이경언 (Tel: 02-3704-3662, e-mail: eon@kice.re.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사례로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교육부, 전문 예술인력 연수 담당 기관, 문화부 산하 지방 예술교육 관련 기관, 국가 예술 기관, 학교 등을 방문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예술교과 교육과정,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 기관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계 조직 구축,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 핵심어 : 예술 향유, 학교 예술교육 정책, 중학교 예술교육

### 관계부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17개 시·도교육청

## I. 연구의 배경

### ▶ 연구의 필요성

#### ■ 정부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

-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채택함([http://www1.president.go.kr/policy/major\\_government\\_project.php](http://www1.president.go.kr/policy/major_government_project.php) 2016.1.22. 검색).
- ‘문화융성’은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문화체육관광부, 2013: 1)으로, 문화역량 강화, 문화향유권 및 문화다양성 확대 등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가 함축된 것임.
- 이중 문화향유권의 확대는 1980년대부터 정권을 달리할 때마다 매년 문화부문의 목표로 제시되어 왔음(이경언, 2014: 84). 이와 같이 문화향유권의 확대가 30년이 넘게 문화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아직까지 문화향유권의 확대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임.
- 실제로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대비 8.9%p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관람률 상승을 이끈 분야는 영화가 7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 연극, 뮤지컬 순이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4: ii). 따라서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관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술행사 직접 참여율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2014년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문화체육관광부, 2014: vi). 결국 예술을 관람하거나 직접 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 모두에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필요

- 문화 향유 또는 소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문화 소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 소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음(이호영, 서우석, 2011: 113~114). 이는 과거에 경험한 문화적

학습과 향유할 수 있는 한정된 여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학습되거나 내재화된 문화만을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하게 되기 때문임(서인석, 2015: 338).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문화 향유 능력이 오랜 기간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축적되고 내재화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의 경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결국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예술 향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임.

#### ■ 정부 학교 예술교육 정책 개선 필요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간 또한 제한되어 있어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지역과 계층, 기간을 떠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실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 간의 협력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아가 학교 예술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집행 부서들이 이 두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하며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기관들 또는 부서들이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체제가 필요함.
- 현재 교육과정 내 교과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없어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필요

- 중학교의 경우 음악이나 미술 수업 시수가 3년간 68시간으로, 초등학교의 한 학년군(2년) 수업 시수가 136시간인데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예술 교육을 선택한 학교의 비율이 2014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74%, 중학교 44.6%로 중학교에서는 예술교육 선택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40).
- 반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 운영이 자유학기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확대되었음(한혜정 외, 2015: 124).

- 이와 같이 중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유학기 운영으로 예술교육의 기회는 열려 있는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음. 따라서 교과교육으로서의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 ▶ 연구의 목적

-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중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의 사례 중에서도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프랑스의 경우 교육부와 문화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예술(교육) 기관들 간의 공조 또한 잘 이루어지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학교와 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무엇보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통해 이들을 잘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교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언어, 수학, 과학 등에 대한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상위에 위치하며, 대학입학경쟁도 치열함. 이와 같이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입시 경쟁 등 교육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40년 넘게 전환학기제를 잘 운영해오고 있어 우리나라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음.



## II.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결과

### ▶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특징

#### ■ 교육부와 문화부의 연계 지원

- 프랑스는 1964년 음악관련 부처 간 혼합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예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노력이 계속됨. 하지만 처음부터 두 부처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 책임분배의 문제, 교육부의 예술교육 홀대로 인한 예산 분배의 문제 등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20년 넘게 문화부가 교육부에게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음(이구슬, 2006: 65).
- 2000년 발표된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 2005년 ‘예술문화교육에 관한 공동정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두 부처의 협력이 공고해졌으며, 2013년 「학교 재정비를 위한 2013년 7월 8일 법 시행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게 됨.
-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 관련 기관 및 역할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 관련 기관	역 할
예술문화교육최고회의 (Haut Conseil d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년에 설립되어 교육부, 문화부에서 이끌어가는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목적, 방법론, 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시행함.</li> <li>• 양 부서의 관련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음.</li> </ul>
예술문화교육학군대표부 (Délégation académique à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이하 DA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내 기관으로, 각 지방 학군(académie)마다 설치되어 해당 학군의 예술문화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함.</li> <li>• 해당 지방의 지방문화행정국(DRAC), 문화 기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며 예술교육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 지방 학군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수행함.</li> </ul>
국립교육자료센터 (Services Culture, Éditions, Ressources pour l'Éducation Nationale-Centre National 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교육부와 문화부가 함께 계획한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술문화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부 산하의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안에 예술문화과를 설치함.</li> </ul>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 관련 기관	역 할
Documentation Pédagogique, 이하 SCÉRÉN-CN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정책의 전체적인 동향에 맞추어 출간된 다양한 교육 자원들(서적, 잡지, 멀티미디어 출판 등)을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예술과 문화가 학교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 수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li> </ul>
지방문화행정국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이하 DR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의 문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문화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고문 역할을 수행함.</li> <li>• 각 지방문화행정국(DRAC)마다 예술교육 담당관이 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예술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li> </ul>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 (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FR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 단위로 운영되나 작가의 출신 지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현대 미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데 목표를 둠.</li> <li>• 특히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육 부와 문화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li> </ul>

출처: 이구슬, 2006: 5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8~59; 신옥근, 2013: 267

## ■ 학교와 문화기관과의 연계 교육

- 프랑스에서 학교와 문화기관과의 연계 교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나는 미술관 및 박물관, 도시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기관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일찍이 관객 연구와 문화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문화기관의 교육담당자(animateur pédagogique) 시험, 미술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들과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가이드 자격시험 제도를 정비하여 다양한 문화중재자들을 양성, 예술과 문화교육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각 문화기관의 교육담당자, 지방문화행정국(DRAC),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 등의 교육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문화기관을 이용할 경우 예술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한정된 학교 공간을 벗어나 해당 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http://www.arte365.kr/?p=4089> 2016.10.12. 검색)
  - 다른 하나는 참여예술가 또는 협력예술가(artiste intervenant, artiste partenaire)라고 부르는 예술가를 학교에 소개하고 교사와 연결시키는 것임. 예술가와 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교육하는 방식임. 여기에는 일반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카메라맨, 무대 미술가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 받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64). 하지만 어떠한 경우

라도 참여예술가는 수업 자체를 담당한다든지 혹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인솔하는 등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음. 따라서 학교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수업에는 반드시 교사가 동참함. 예술가와 교사의 관계는 서로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면서 보완하는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67; 이구슬, 2006: 59~60).

## ■ 예술적 국민의 배출을 위한 예술교육

- 프랑스에서 예술문화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예술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닌 예술적 국민의 배출에 있음.
  -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 개발될 때 어린이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이 다른 형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임(<http://www.arte365.kr/?p=4089> 2016.10.12. 검색).
- 예술적 국민의 배출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이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해야만 예술적 국민을 배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교원양성원(IUFM)에서 예술교과 이외의 전공 교사들도 예술문화교육 수업(영화 및 시청각, 무용, 미술사, 연극 등)을 위한 선택교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술교육의 목적이 예술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해 다른 교과를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수성과 비판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조희연, 2011: 46~47).

## ■ 학교교육과 접목 가능한 예술 관련 축제의 조직적 운영

- 프랑스에서는 학교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문화 관련 축제 및 행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1).
  - 68혁명 이후 자크 랑 장관은 국민이 주도하는 문화축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기획하여 새로운 문화질서를 창출한 젊은이들을 다시 화합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중 참여의 문화를 새롭게 개척함(원향미, 2016: 43~44).
  - 축제와 행사는 교육의 경로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화 및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교육부,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문화기관과의 연계 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학교교육을 통한 예술교육의 강조

-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학교를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규정하고 과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정규 예술교육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여 접목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70).
- 예를 들어 2001년 시작된 예술문화교실 프로젝트(Project Artistique et Culturel, Classes à PAC)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교사의 책임 아래 각 분야의 전문가나 예술가들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임. 문화부는 각 지역에서 학교와 협력할 예술가를 확보하여 교사의 책임 하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의 문화자원(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황혜진, 2010: 544~545).

## ■ 공통 기초과목 학습과 교과통합을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 3월 2016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중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과목의 강화를 위해 오늘날 중요하게 여겨지는 8가지 주제(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와 과학, 안전과 건강, 정보와 소통과 시민성, 문화와 창의성, 경제, 고대 언어와 문화, 외국어 및 외국 문화,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연간 최소 2개 주제를 가지고 교과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학생들의 표현, 참여, 창의성을 이끌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함([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 2016.10.20. 검색).
-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변화로는 첫째, 지식, 경쟁력과 함께 문화 역량이 의무교육 기간 성취해야 할 기초적인 역량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교육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쟁력을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지식, 경쟁력, 문화 역량을 음악이나 미술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0> 2016.10.20. 검색)

## ■ 문화정책의 방향에 따른 학교 예술교육 정책

- 프랑스 문화정책 이념의 뿌리는 문화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어 본격적으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현 정부에서도 문화부 2016년 네 가지 정책 우선 순위 중 첫 번째를 ‘전 국민 대상 문화접근성의 민주화 추구’로 정하고, 지역 간 문화접근성 균형 강화, 사회통합과 시민의 권리 증진 도모, 청년 대상 정부정책에 새로운 차원의 우선순위 부여 등의 과제를 제시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248).

## ▶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특징

### ■ 기관 간 공조 체제에 기반한 예술교육 정책 전담 기관 설치

- 아일랜드에서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에 예술교육 정책 전담 기관으로 ‘예술위원회(Arts Council)’를 설치하였음(Long, 2015: 268).
  - 아일랜드에서도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체제 구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 교육부, 문화부, 예술위원회 등 국가 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술, 예술교육, 교육 분야의 교류나 협력이 부재하여 서로 분리된 채 예술교육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의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적, 예술적 소양의 미비, 21세기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상상력 육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예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술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http://www.artscouncil.ie/home/>). 국가 차원의 포털 구축을 통하여 전국의 예술 및 예술교육 관련 기관, 조직,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식과 자원 공유 및 예술교육에 대한 연대감을 조성하고자 함. 포털에서는 사회 속 예술분야와의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예술 수업 사례,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둘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실시한 학교 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Long, 2015: 269).

- 셋째,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Long, 2015: 269). 예를 들어 다양한 지역의 예술 권위자들과 연계한 Artist in Schools Scheme과 Poetry Ireland가 운영하고 있는 Writers in Schools Scheme에 자금을 지원하며, 전환학년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National Architect in School은 아일랜드 건축 기금(Architecture Foundation), 예술위원회, 교육부, 문화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 국가와 지역 연계 파트너십에 기반한 Arts-in-Education 정책 구현

- 아일랜드의 예술교육 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예술 및 예술교육 유관 기관 및 조직, 예술가들, 지역교육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큰 규모의 국가-지역 연계 예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임(Long, 2015: 270).
  - 예를 들면 Association for Creativity and Arts-in-Education(ACAE)는 예술을 통한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이라는 교육 목적을 위해 모인 교사와 예술가의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가 있으며, Encountering the Arts Ireland(ETAI)는 2013년 11월에 문화부와 교육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30개 예술, 교육, 문화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상징임.

## ■ 교사 교육 센터(teacher education center)와의 협업을 통한 연계 강화

- 아일랜드의 예술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중앙의 교육부, 문화부, 예술위원회의 삼각 구도가 구축이 되어 이루어지며, 중앙의 예술교육은 다시 지역의 예술교육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지역 단위에서 중앙의 예술교육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교사 교육 센터(teacher education center)’와의 협업임(면담조사, 2016.5.18.).
  - 중앙의 예술위원회가 교사 교육 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Arts Rich School Award와 Music Generation이 있음.
  - 이 정책들은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와 풍토의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음.
  - Arts Rich School Award는 학교가 어떻게 예술을 수용하고, 예술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예술에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하는 문화 형성 여부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여 매년 상을 수여하는 것이며, Music Generation은 학생들에게 예술가들과의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사-예술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운영됨.

## ■ 전환학년을 통한 다양한 예술 장르 참여 및 학교 예술 향유 문화의 정착

- 전환학년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 체험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음(면담조사, 2016.5.19.a).
  - 전환학년 예술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전에 예술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지식 학습에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나아가 단순히 예술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예술에 대한 깊은 경험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임.
  -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전환학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음(면담조사, 2016.5.19.a).
  - 면담조사에서는 전환학년 프로그램을 지역 예술기관이나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면담조사, 2016.5.19.a). 정규 학교 음악, 미술 교과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없어 그 시간을 미술관 방문 등에 사용하기 어렵고, 지역 예술기관은 이미 다른 학교들의 방문으로 차버리기 때문에 지역 예술기관 방문 및 예술가 방문을 요청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수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음.
  - 전환학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교사의 전문 분야와 역량에 따라 개설될 수 있음(면담조사, 2016. 5.19.b).
- 전환학년을 통하여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학교 예술 향유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음(면담조사, 2016.5.19.a).
  - 아일랜드에서는 다양한 예술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연 대회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학교 내에서도 음악, 미술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학교 전체가 함께 예술 향유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음.

## ▶ 시사점

### ■ 교육부와 문화부, 문화기관 등 예술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는 교육부, 문화부, 문화기관 등을 연계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첫째,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조를 위한 중앙 차원의 조직을 구축함. 프랑스의 ‘예술문화 교육최고회의’와 아일랜드의 ‘예술위원회’가 그것임.
  - 둘째,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고 지방에서의 교육과 문화를 연계하며, 이를 학교에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 차원의 조직 구축임. 프랑스의 경우 교육부 산하 기관인 예술문화교육학군대표부(DAAC)와 지방문화행정국(DRAC)이 있음. 이 두 조직은 상호 연계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 이곳에서 교사와 수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일랜드의 경우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에서의 교육과 문화를 연계하고 있음. Association for Creativity and Arts-in-Education(ACAIE)와 Encountering the Arts Ireland(ETAI)가 그 사례임.
  - 셋째, 연계를 위한 포털을 구축하는 것임.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 예술교육 온라인포털 (Arts in Education Portal: <http://artsineducation.ie/en/home/>)’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관련 온라인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 ■ 학교 교육을 통한 예술교육의 강조 및 지원

- 프랑스에서는 예술 작품을 일찍 접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장소는 없다는 신념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학교 예술교육 방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음. 1988년의 「예술교육 과정법」,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 2005년 「학교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 및 프로그램 법」, 2013년 「학교 재정부비를 위한 2013년 7월 8일 법 시행령」 등이 대표적임. 이 법들에는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음. 따라서 단순히 강제성을 가진 법령으로서가 아니라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매뉴얼의 역할을 하게 됨.



- 아일랜드에서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예술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시행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음(Long, 2015: 270).
  - 예술위원회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술 조직들이 정부의 자금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며, 학교 예술교육 서비스와 학교 예술교육에서 발전이 거의 없는 예술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또한 아일랜드의 학교 교육 과정의 개발 및 평가를 담당하는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와 연계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임.
  - 이러한 지원을 위해 아일랜드에서도 일찍부터 법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예술 시행령」이 1951년, 1973년에 공포된 것임. 1951년 공포된 시행령에 의해 예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73년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1976년에 Richard Report가 발표되었음. 이어 1979년에 발표된 Beson Report에서는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를 예술교육(Arts Education)과 교육에서의 예술(Arts-in-Education)로 구분하면서 학교 예술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오늘날 아일랜드 예술위원회의 예술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283).

## ■ 예술 향유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 프랑스에서 학교 예술교육은 예술적 국민의 배출을 위한 예술 향유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는 교사 교육을 통한 지원임. 예술교과 이외의 전공 교과들도 예술문화교육 수업을 위한 선택교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조희연, 2011: 46~47).
  - 둘째는 조직을 통한 지원임. 2003년 개설된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예술문화과에서는 교육의 기초로서의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과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교육의 기본으로서 예술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9).
  - 셋째는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 교육과정 지원임. 예술교과에서 음악과 미술 교과는 학교 예술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로, 이들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는 2015년 3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교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 참여, 창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 2016.10.20. 검색).

- 아일랜드에서는 예술 교과 교육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학생들이 미래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예술 향유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는 2013년부터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에서의 예술 (Arts-in Education)’ 정책임. 이 정책은 음악과 미술교과를 기본 교육으로 하면서 선택교과(short courses)와 전환학기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둘째는 ‘교사 교육 센터(teacher education center)’의 활용임. 교사 교육 센터는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역 교육청의 예술 담당자와 협력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Ⅲ.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 제언 1: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 ■ 제언 배경

- 예술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자격 심사를 강화하여 예술강사의 질을 관리하고, 학교와 지역의 예술 및 예술교육 기관에 예술가,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

-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과정 강화
- 국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 구축

-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과정 강화
  -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인력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의 예술교육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인증제 도입을 제안함.
  -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전문 예술교육 인력을 인증하는 방법으로는 예술교육 기관을 인증하고 그 기관에서의 인증 과정을 거친 인력에 대해 인증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강화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lt;표 2&gt;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강화 방안

현행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제도: 문화예술교육사</li> <li>• 자격 요건: 2급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을 제외한 9과목 270시간 또는 18학점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19과목 720시간 또는 48학점을 이수한 사람, 학교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를 14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제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예술교육기관의 인증 및 국가 공인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li> <li>• 자격 대상: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예술교육기관의 인증 및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을 받은 예술가, 예술단체, 문화 관련 종사자</li> </ul>

- 국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 구축
  - 국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를 통해 학교와 예술 교육 전문 인력 양측에 적합한 인력을 연결해 주고, 해당 교육 활동이 끝난 후 평가하여 인력 지원 시스템에 환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함.
  - 학교, 교육청 등에 요구 조사를 통해 필요 전공과 인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 교육 전문 인력 공급 계획을 세워 학교와 예술 인력을 연계하되, 수요만큼의 공급 인력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력을 발굴하고, 공급 인력의 상세 정보(예술가의 예술 및 예술교육 활동, 관심 있는 프로그램 등)를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 ▶ 제언 2: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 ■ 제언 배경

- 기능 중심이 아닌 향유 중심의 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교육 관련 연수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수의 내용 또한 연수 대상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추진 과제**

- 예술교과 교사의 경력에 따른 정기적인 직무연수 도입
- 비예술교과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예술교과 교사의 경력에 따른 정기적인 직무연수를 도입해야 함
  - 교육부가 2015년 11월 발표한 ‘2016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내실화를 위해 교직 경력별(생애별), 직무별에 따른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경력별 연수에서는 교직핵심 역량 연수가 이루어지게 됨(교육부, 2015: 13). 따라서 교육부의 교원 연수 추진 방향에 따라 교직핵심 역량 연수와 함께 예술 교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력별 직무연수를 추가 운영하여야 함.
- 비예술교과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학교 예술교육 연수를 비예술교과 교사와 교장, 교감 등의 학교 관리자, 예술교육 사업 담당자 등에게로 확대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2016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는 교장·교감 대상의 직무연수 강화 방안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 환경변화,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음(교육부, 2015: 11). 따라서 관리자 대상의 예술교육 직무연수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예술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연수 대상별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예시

연수 내용	연수 대상		
	예술교과 교사	비예술교과 교사	관리자
학교 예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해 및 실습	○		
예술 교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예술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예술교육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	○
학교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		○
학교 예술 향유 교육 국내외 우수 사례 이해	○		
교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개발 실습	○	○	
예술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	
학교 예술교육 운영(예산 및 인적 자원 등) 실무 이해			○

### ▶ 제언 3: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계 조직 구축

#### ■ 제안 배경

- 우리나라 학교 예술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학교 예술교육 정책들 간 중복을 방지하고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관리하며, 중앙과 지역의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 구축되어야 함.

#### ■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를 위한 통합 기구 설립

**추진 과제**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자문 및 집행 기구인 (가칭) '예술교육위원회' 설립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자문 및 집행 기구인 (가칭) '예술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함.
- (가칭) '예술교육위원회'는 두 부처의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임.
- (가칭) '예술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위원장 외에 교사, 예술가, 교육전문직, 문화 기관 종사자 등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가칭) '예술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중앙의 정책을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의 학교, 지자체, 다양한 예술(교육) 기관, 예술가 조직,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국가의 예술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할 수 있음.

## ▶ 제언 4: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 ■ 제언 배경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 지역과의 연계가 학교 예술교육에서 많이 필요함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사나 학교 차원의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예술강사의 교과 수업 투입으로 예술 향유가 아닌 기능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 시수에 따른 중학교 교사와의 마찰이 생기는 등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추진 전략 및 과제 1

**추진 전략** 1. 학교와 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 활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추진 과제**

-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 자원 활용 관련 내용 개정
- 지자체 수준에서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 자원 활용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내용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국한된 것이어서 중학교의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총론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lt;표 4&gt; 교육과정 총론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b>자유학기 활동 등 학교의 교육 활동을</b>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지자체 수준에서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 문화 시설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이용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공공시설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교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문화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다음과 같음.

&lt;표 5&gt;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 제정 근거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li> <li>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li> <li>제39조 (국고 보조)</li> <li>•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b>제1조(목적)</b>  <b>제2조(정의)</b>  <b>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b>  <b>제4조(지자체 장의 책무)</b>  <b>제5조(사업의 운영과 지원)</b>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 진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 문화시설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용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이하 생략 -</p>

## ■ 추진 전략 및 과제 2

**추진 전략** 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

**추진 과제** •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개정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예술 강사 교과 수업 투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교과 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교사의 수업을 대신하는 예술강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예술강사에게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2012년 관련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수 활동 역량 강화가 학교의 모든 예술교육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예술강사와 교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서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현행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6>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u>교원의 교과 수업을 지원할 수 있다.</u>

## IV. 기대 효과

### ▶ 정부의 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정부의 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했음. 이 연구에서 보여준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임.

### ▶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은 교육과정 개발, 교사 교육, 포털 구축,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 신설, 법령의 제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변환하려는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착근 및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에 기여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기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양상은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학교 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6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서인석(2015).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효용성 연구: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5(4), pp. 337-366.
- 신옥근(2013). 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3, pp. 243-272.
- 원향미(2016).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언(2014).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음악교육 정책의 방향. **음악교육공학**, 18, pp. 81-104.
- 이구슬(2006).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고찰 - 프랑스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9(2), pp. 45-74.
- 이호영, 서우석(2011).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pp. 91-118.
- 조희연(2011). 공교육으로서의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정책 고찰. **예술교육연구**, 9(2), 41-5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2015 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 동향자료집: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혜정, 김영은, 이주연, 곽상훈, 김광하, 김기탁, 김용진, 박지만, 진동섭, 최동선, 한충희, 황유진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중·고등학교)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8.
- 황혜진(2010).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7(4), pp. 537-555.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2012). **Arts in Education Charter**.
- Long, S. D. (2015). The arts in and out of school: Educational policy, provision and practice

in Ireland today.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8(2), pp. 267-286.

## 관련 자료 목록

### [면담 조사 자료 목록]

면담 조사. (2016.5.18.). 아일랜드 교육부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논의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면담 조사. (2016.5.19a). Nortre Dame Secondary School 학교 예술향유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면담 조사. (2016.5.19b). St. Colmcille's Community School 학교 예술향유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인터넷 자료 목록]

[http://www1.president.go.kr/policy/major\\_government\\_project.php](http://www1.president.go.kr/policy/major_government_project.php) (2016.1.22. 검색)

<http://www.arte365.kr/?p=4089>. (2015. 10. 12. 검색)

<http://www.artscouncil.ie/home/> (2016. 10. 20. 검색)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 (2016.10.20. 검색).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0> (2016.10.20. 검색)